

국제평화질서와 SDI

강 근 형*

목 차

- I. 서론
- II. 핵무기시대의 국제평화질서
 - 1. 평화의 의미와 분석수준
 - 2. 핵무기시대의 평화질서의 의미
- III. SDI와 미국의 핵전략
 - 1. SDI의 개념
 - 2. 미국의 핵전략하에서의 SDI의 위상
- IV. 국제평화질서와 SDI : 평가 및 결론

I. 서 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원자탄이 사용된 후 인류는 핵시대에 살게 되었다. 이 시대에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 딜레마는 가공할 위력을 가진 핵무기 때문에 평화가 도덕적으로 요구되지만, 한편, 그러한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소 양초대강국은 핵전쟁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다.

*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조교수

이 딜렘마는 인간사에 있어서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현상을 잘 묘사하고 있다. 우리의 이상은 이 지구를 파멸할 수 있는 핵무기를 모두 제거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미·소 양국이 상호간에 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경쟁을 치열하게 실시하고 있다. 핵전쟁을 실시한다는 것은 인류의 자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미·소 어느 한편이 핵무기의 우위를 믿고 핵전쟁을 감행했을 경우, 또는 그러한 경우에 대처하여 다른 한편이 아무런 보복도 하지 않고 굴복한다는 대안도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핵전쟁에 대해서는 평화주의자와 현실주의자의 두 견해가 극단적으로 대립되고 있다. 극단적인 평화주의자나 반전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비폭력에 대한 도덕적인 당위성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에 개입되기를 일체 거부한다. 그들의 입장이 그 나름의 철학적 또는 도덕적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핵전쟁의 위협은 곧 인류 존망에 대한 위협이란 뜻에서 핵무기의 전면적 사용금지과 제한을 주장하는 평화주의자의 입장에는 도덕적 긴박감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¹⁾

반면, 현실주의자들은 핵전쟁 그 자체가 비도덕적이지 아니라, 그것이 국가이익을 증진하고 불완전하나마 전쟁을 억지한다면 용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사실상 국제정치 그 자체가 무정부상태에 있다면 국가가 생존과 안보를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면 어떠한 수단도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주의 입장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핵전쟁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억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즉, 억지력은 미·소가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자국의 안보를 지킬때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반드시 선한 것이

1) 이러한 입장의 전개과정을 간략히 소개한 글로는 Bertrand Russell, "The Early History of the Pugwash Movement," in Seymour Melman, ed., *Disarmament: Its Politics and Economics* (Boston: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1962), pp. 18~31 참조, 이홍구, 「군축과 평화」, 「국제정치논총」, 제17집(1977), p. 244에서 재인용.

아니라 악한 데가 있고, 또 악이 선을 제압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서 힘으로 악한 힘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이다.²⁾

따라서 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면적 핵폐기를 주장하는 평화주의자들의 입장은 그 주장의 당위성과 도덕성에는 동의하나, 그것은 결국 미·소 핵경쟁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간과한 이상주의에 지나지 않으며 그런 주장을 통해 미·소 핵전쟁을 방지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핵억지력을 통한 핵전쟁의 방지와 이를 기반으로 국제평화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이 글은 첫째 핵무기 시대의 국제평화질서를 모색해보고, 둘째는 요즘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SDI(Strategic Defence Initiatives : 전략방위계획)가 기존의 핵억지전략을 중심으로 한 국제평화질서에 어떠한 문제점을 제기할 것인가를 평가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둔다.

Ⅱ. 핵무기시대의 국제평화질서

1. 평화의 의미와 분석수준

우리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평화는 대체로 두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고찰할 수 있다. 하나는 소극적 측면에서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와 동일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적극적 측면에서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 부재한

2) 안병준, "핵전쟁시대에 있어서 평화의 개념," 「세계 평화는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서울: 경희대 국제평화연구소, 1984), pp.65~69 참조.

이러한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을 잘 묘사한 논의로는 다음 참조.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5th ed.; New York: Alfred A. Knopf, 1973); Quincy Wright, *A Study of War*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42);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상태만을 뜻하기 보다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갈등과 분쟁을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토론과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인간공동체를 창조하는 과정으로 규정해 보려는 입장이다.³⁾

평화는 국가간에 조직화된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인이나 집단 및 국가들간의 관계에서는 크고 작은 대립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평화는 보다 더 넓은 의미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상으로 추구하는 평화는 이와 같은 소극적 의미의 평화가 아니라, 인간이 타인의 자의에 의한 간섭없이 품위를 지키며 자유롭게 자기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보장된 질서인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평화는 단순한 폭력배제의 상태만이 아니라, 인간다운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자유까지가 확보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의하여 폭력에 의한 강제적 방법으로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약받는 상태는 모

-
- 3) 평화의 의미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Johan Galtung, "Peace," in Davi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11(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74), pp.487~496; Johan Galtung, "Peace Research: Past Experiences and Future Perspectives," in Galtung, *Peace and Social Structure Essays in Peace Research*, Vol. 1(Atlantic Highland: Humanities Press, 1975~80), pp.244~262; Julius Stone, *Research for Advancement of Peace* (Jerusalem: Hebrew University Press, 1968), pp.3~4 참조.

럼멜은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는 이를 통해서 인간이 행복과 민족을 발견할 수 있는 질서(order)를 의미한다고 한다. 즉, 적극적 평화란 단순한 폭력으로부터의 평화만이 아니라 인간의 자존심을 만족시켜 주는 마음의 평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 평화는 정부의 힘을 극대화시켜, 각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최고도로 성취할 수 있을 경우 가능하다고 한다. 더 나아가 세계평화도 각 국가의 힘을 최소화시켜 여론의 견제로 분쟁에 개입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가치를 최고도로 실현시킬 수 있는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을 때 달성될 수 있다고 한다. R. J. Rummel, *In The Minds of Men: Principles Toward Understanding and Waging Peace* (Seoul: Sogang University Press, 1984), pp.265~274 참조.

두 비평화의 상태로 해석된다. 결국, 평화질서란 폭력적 수단에 의한 타인의 자의적 지배의 배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질서를 말하는 것이다.⁴⁾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국제평화질서란 한 국가가 자의적으로 폭력적 수단(전쟁 및 테러 등)을 동원하여 타 국가를 침략할 수 없는 상태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질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평화질서는 전쟁없는 상태란 소극적 의미와 그것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적극적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은 국가간의 법률이나 조약 등의 합의를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국가가 전쟁을 도발하고 싶어도 도저히 도발할 수 없는 조건 내지 상황을 조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특히, 평화의 소극적 의미인 전쟁의 방지는 핵무기가 개발된 2차대전 이후에는 인류의 지상과제가 되었다.⁵⁾ 왜냐하면 오늘날의 과학기술의 발달수준을 고려할 때, 만약 지구상에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 인간은 아무리 이성을 가진 존재라 할 지라도 그것을 제어할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놀라운 파괴력으로 인류문명 자체가 종식을 고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화질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다양한 방책들이 있으나,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은 대략 다음의 네가지 수준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⁵⁾

첫째는 개인적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평화와 전쟁의 문제는 인간의 내면적인 본성이나 심리상태와 관련된다는 것을 전제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교육 등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보다 더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본래 집단간이나 혹은 국가들간에 일어나는 대립과 분쟁은 인간이 내면적인 갈등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만약 인간이 내면적인 갈등으로부터 벗어나면 날수록 그는 보다 덜 전투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에

4) 이상우, "국기중심체제의 장래," 「한국정치학회보」, 제17집(1983), p.332 참조.

5) 이러한 구분은 다음 참조. Johan Galtung, "Peace, *op. cit.* ; 신정현, "현대 세계와 평화연구-평화연구의 방향모색을 중심으로," 「平和研究」, 제1권, 제1호(경희대 국제평화연구소, 1981. 12), pp.39~45 참조.

기초를 두고 있다. 인간을 내면적인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방법으로는 종교적 교화나 교육에서부터 심리요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이처럼 평화와 전쟁을 개인의 심리적 차원과 연결시켜 보려는 사람들은 개인 수준에서 심리적 안정과 평화가 이루어지면 보다 높은 수준인 집단이나 국가 내지는 국제관계에서도 평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⁶⁾ 좌절감이 쌓였을 때 공격적이 되기 쉬우므로 국가나 세계적인 지도자를 고를 때, 그 인격이나 품성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는 사회적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 수준에서 평화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전쟁은 사회내에 존재하는 집단들간의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일어난다고 보고,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집단들간의 이해관계의 갈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한 사회에서 집단들이 고도로 분열되어 있어 그들간의 이익의 조정이나 통합이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게 될 때 전쟁은 일어나게 되며, 비록 초기 단계에서는 집단들간의 충돌로 시작되지만 후기단계에서는 국가 대 국가의 전쟁으로 확대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내에서 집단들간의 갈등과 분열이 평화적으로 조정·통합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집단들간에 균형을 이루어 서로 견제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내에서의 부의 균등한 배분이나 인종적·지리적 차별의 제거 등은 그 사회내에서의 갈등의 요소들을 줄이는 데 필요하며, 나아가 그 사회로 하여금 보다 더 평화지향적 성향을 갖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⁷⁾

럼멜(R. J. Rummel)은 자유주의 체제간에는 상호간 폭력이 배제된다는 명제

6) 신정현, 위의 글, p. 39.

전쟁의 원인과 평화의 구축을 인간의 본성과 행위속에서 찾는 논의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해서는 Kenneth N. Waltz, *op. cit.*, ch. 2.3 참조.

7) 신정현, 위의 글, p. 40.

를 경험적으로 실증하였다. 즉, 자유주의 국가내에서는 내부의 여러가지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들간의 교차압력 때문에 대외적인 모험이라 할 전쟁을 쉽게 감행할 수 없으므로 방어적인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⁸⁾ 결국, 사회적 수준에서 국제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집단간의 민주적 경쟁을 통한 상호견제를 통해 국가권력을 견제함으로써, 각 국가가 호전적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겠다.

세번째의 분석수준은 국제적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 수준에서 접근하는 이론가들은 전쟁은 바로 국가들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의 문제도 이러한 국제적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적 수준에서 평화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란 국제적 무정부상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곧 평화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이 내세운 주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⁹⁾

1) 세력의 분포(distribution of power), 2) 분쟁의 조직(organization of conflicts), 3) 개인의 충성심의 충돌(individual loyalty conflicts), 4) 유사도(degree of homology), 5) 국제적 계층(international stratification), 6) 상호의존도(degree of interdependence)등의 기준이다.

우선, 세력의 분포라는 기준에서 본 평화모델은 국가들 간의 세력의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가 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최소 평등, 최대평등과 낮은 수준에서 균형된 군사력 및 0의 수준에서 안정된 힘이라는 기준에서 생각할 수 있다. 최소평등의 모델은 세력이 한 국가나 체제에 의해 독점됨으로써 평화가 가장 잘 보장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 예로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평화(Pax Romana), 기독교 중심평화(Pax Ecclesiae) 및 영국 중

8) R. J. Rummel, *Understanding Conflict and War, Vol. 4, War, Power, Peace*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1979), pp. 227~279 참조. 이상우, 앞의 글, pp. 335~336에서 재인용.

9) 이하의 것-의는 Johan Galtung, "Peace," *op. cit.*, pp. 489~493 참조.

심평화(Pax Britanica) 등을 들 수 있으며, 미국 중심평화(Pax Americana) 혹은 소련 중심평화(Pax Sovietae)를 위한 노력이 평화공존 이전에 시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델은 자연히 힘을 독차지한 국가가 여러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우며 자기의 체제를 강요하기 쉬운 점이 있다.

최대의 세력의 평등에 초점을 둔 모델은 세력균형(balance of power)모델인 바, 어떤 한 국가도 다른 국가나 동맹국들을 패배시키기에 충분한 힘이 없는 경우의 모델이다. 현재 미국이나 소련은 핵전쟁이 일어나면 양국이 다 완전히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완전파괴의 공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그 예이다. 완전히 파괴된다는 데 대한 두려움은 양국이 다 같이 갖고 있으므로 이른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⁰⁾

군사력을 아주 낮은 수준에서 안정시킨다는 모델은 군비축소와 군비통제를 통해 전쟁과 분쟁을 제거하려는 방법이다. 군비통제의 이념은 1899년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부터 비롯되었으며 근본적으로 전면적인 전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폭력의 수단을 어느 정도 제거하자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0의 수준에서 안정된 힘을 유지하려는 모델은 모든 국가가 완전한 무장해제를 함으로써 평화를 이룩하자는 것으로 평화주의자들이 내세우고 있다. 모든 국가들이 모든 무기들을 제거할 때 평화는 실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세계의 무장해제는 어떤 무기가 그와 비슷한 무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무용하게 될 때 또는 군인들이 무기사용을 거부할 때, 그리고 각

10) '세력균형'과 '공포의 균형'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Hans J. Morgenthau, *op. cit.*, pp.167~221; James E. Dougherty and Robert L. Pfaltzgraff, Jr., eds.,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J. B. Lippincott Company, 1971), pp.30~36, 254~278; Bruce Russett and Harvey Starr, *World Politics: The Menu for Choice* (San Francisco, 1981), pp.364~398; Charles W. Kegley, Jr. and Eugene R. Wittkopf, *World Politics: Trend and Transform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1), pp.383~415.

국 정부들이 무기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릴 때, 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의 조직(organization of conflicts)에 기초를 둔 모델은 교차모델이다. 만약 두 국가가 한 충돌에서는 서로 우방이지만 다른 충돌에서는 적대관계가 되어 압력을 서로 교차하게 되면 위축, 중립 혹은 비동맹의 경향을 띄우게 된다. 따라서 어떤 분쟁에 가담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델에서는 국가들이 교차압력을 받게 될 때 평화가 이뤄진다고 본다.

개인의 충성심의 충돌에 기초를 둔 평화모델은 복수의 국가적 충성심을 추구하는 모델이다. 실제로 국제간 결혼과 학생,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정치인들, 직업적 전문인들을 교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사도에 근거를 둔 모델에는 두가지 모델이 있다. 최소 유사도에 의한 모델에 있어서는 국가들은 서로 달라서 유사점이 거의 없으므로 다른 가치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똑같은 희귀한 가치있는 것을 놓고 경쟁하지 않으며 서로 상호의존관계가 보완관계에 놓인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최대의 유사성이 지배적이 되면 국가들은 사회구조나 가치구조가 대단히 유사하게 되어 여러가지 교류를 촉진하게 되며 가치의 합의(consensus)를 창조해 내게 된다는 것이다. 문화의 유사성이 클수록 오해의 확률은 낮다. 그러므로 평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제적 계층화에 근거한 평화모델에서는 국제적인 계층 즉 국가의 크기, 인구, 세력, 자연자원, 일인당 국민소득, 문화수준, 도시화 정도에 따라 순위의 고저가 있을 때 상위에 있는 사람끼리 높은 수준의 상호 교호작용이 있고, 하위에 있는 사람과는 상호작용이 낮은 수준에 있는 봉건적 제도하에서는 국제적 제도가 외교관계나 무역 등을 통해 상위에 있는 집단끼리 교환관계가 있게 되고 하위에 있는 사람끼리는 거의 교환관계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국가간의 상위집단끼리 합의(consensus)를 얻으면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서 상하위의 교환관계가 같은 수준의 교환이 있는 국가들 간에는, 부유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쉽사리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고 상위 집단끼리 합의된 것이라도 하위 집단의 반발로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된다.

상호의존도에 기준한 평화모델에서 보면 국가들 간에 무역, 문화의 교류 등으로 상호의존관계가 있게 되는데, 만약 서로 교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독립된 국가들 간에는 충돌도 적을 것이므로 소극적 평화가 유지되기는 쉽다. 여기서는 적극적 평화는 배제된다. 또,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국가들 간에서는 전쟁은 너무 큰 희생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는 적극적 평화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이나 상호작용은 각기 빈도(frequency)나 양(volume) 및 범위(scope)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해소나 폭력제거에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기능적 협동에 기준한 평화모델에서는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두 국가가 합동해서 물건을 생산해 내는 협동체제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협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들 간에 기능면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지라도 그것은 종종 정치적 대립이나 갈등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네번째의 분석수준은 세계적 수준의 문제이다. 이 수준은 궁극적으로 전 세계가 평화구현을 위한 하나의 단위(unit)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는다. 세계적 수준에서 평화를 실현하려는 이론이나 정책은 대체로 국가연합(confederation)의 모델이나 세계체제(world system)의 모델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자의 경우 여전히 일정한 국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nations)을 기본 단위로 해서 국가연합체를 형성시키는 것이 세계평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개인을 기본 단위로 해서 하나의 세계국가 내지는 세계정부를 조직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국가연합의 모델은 개별 국가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세계에서 사회문화적 다원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평화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다원체제는 문화적 편견이나 차별현상이 나타남으로써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할 가능성이 높다.¹¹⁾

11) 신정현, 앞의 글, p. 42.

세계체제의 모델은 범위(scope)와 영역(domain)에 의해서 설명 될 수 있다. 여기서 범위라 함은 얼마나 많은 종류의 욕구가 세계체제에 의해 충족되는가를 뜻하며, 영역이라 함은 몇사람이나 세계체제로부터 욕구충족을 받느냐를 이르는 말이다. 범위와 영역에 의해서 세계체제를 구분하면 첫째는 범위가 높고 영역이 낮은 상태의 세계체제를 볼 수 있다. 즉, 여러가지의 만족을 얻지만 그 가입수가 제한되어 있는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를 들 수 있다. 둘째 모델은 영역은 높고 범위가 낮은 수준의 모델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멤버십은 제한이 없으나 실제 여러가지 종류의 욕구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형태의 모델로 그 대표적인 예는 유엔이 되겠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세계체제는 범위와 영역이 다 높은 수준이 바람직하다.¹²⁾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가연합모델과 세계체제모델은 서로 다른 것이라기 보다는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점진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연합체의 구성은 궁극적으로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능력과 자율성을 갖고 있는 세계국가 내지는 세계체제의 실현을 향한 중간단계로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평화의 문제를 어느 하나의 수준에서만 연구하거나 계획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유용하지도 않다. 그 대신 네가지 수준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복합적인 퍼스펙티브(perspective)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느 한가지 수준에서만 그 원인과 과정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전쟁은 개인 지도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으며, 또한 사회내의 어떤 특정집단의 이익이나 목표와 관련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전쟁은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이익의 대립과 충돌로 인해 일어날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 전쟁의 발생요인을 어느 하나의 수준에서 규정한다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를 범할 소지가 많은 것이다.¹³⁾

12) Johan Galtung, *op. cit.*, p. 493.

13) 신정현, p. 43

그러나 핵무기가 현실화된 오늘의 상황에서 국제평화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핵전쟁의 방지가 최우선적인 가치순위로서 집권되어야 한다. 따라서 핵무기 시대의 평화질서는 상기한 바의 분석수준 가운데서 우선적으로 국제적 수준에서 세력균형에 기반을 둔 군비축소와 군비통제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2. 핵무기시대의 평화질서의 의미

전쟁이 없는 상태가 일반적으로 소극적 의미의 평화를 지칭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도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 국가상호간에 전쟁준비를 하지 않고 무장해제의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은 '안정된 평화'요, 그렇지 않고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상호보복이 두려워 실제로 군사충돌이 없는 상태가 '불안정한 평화'라고 할 수 있다.¹⁴⁾

평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완전한 무장해제 상태인 '안정된 평화'가 가장 바람직스런 상황이긴 하나, 오늘날의 미·소강대국의 정책으로 보아 그것은 머지 않은 장래에 실현될 것 같지 않다. 따라서 핵전쟁시대의 평화는 그 성격상 '불안정한 평화'일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은 미·소양국이 전쟁을 도발하고 싶어도 도발할 수 없는 조건 내지 상황을 조성시키는 이른바 '공포의 균형'에 입각한 상호억지적인 군사력의 균형상태를 의미한다.¹⁵⁾

미·소가 동시 멸망을 회피하는 데 상호이익을 같이 함으로써 이러한 균형이 성립된다. 이러한 의미의 평화는 많은 제한성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양자간에 갈등의 원천을 해결하지 않고 군사교착상태와 멸망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공존하고 있으므로 항시 정치, 경제 및 사상적인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것은 긴장완화와 갈등해소를 지연시

14) Kenneth Boulding, *Stable Peace* (Austin: University of Texas, 1979) 참조. 안병준, 앞의 글, p. 68에서 재인용.

15) 핵시대의 평화를 모색한 논의로는 The Harvard Nuclear Study Group, *Living with Nuclear Weapon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pp. 232~255 참조.

키며, 근본적으로 경쟁관계를 지속할 수 밖에 없다.¹⁶⁾

그리고 균형이라는 것도 무기기술과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매우 유동적이며, 그 내부구조는 항시 변하며 동태적이다. 핵시대의 평화는 이처럼 매우 위태로우면서도, 또 불안정한 상태의 균형을 의미한다는 것이 인류가 직면한 현실이다.

그러면, 이러한 힘의 균형에 입각한 불안정한 평화에 의존하면서도, 어떤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평화질서가 될 수 있을까? 미·소양국의 무기체제로 보면, 핵전쟁에서 어느 일방이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한한 군비경쟁을 계속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는 가장 저수준의 핵균형을 확보하는 데 상호 동의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핵무기의 완전제거를 의미하는 무장해제일 것이나, 이것은 상호 신뢰와 검증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무장해제 상황에서는 어느 일방의 약속 파기가 곧 절대적인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전쟁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국제평화는 위협스런 상태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의 현실에서 가능한 것은 전면적인 무장해제 보다는 상호균형에 입각한 군비축소나 군비통제가 오히려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핵무기시대의 국제 평화질서는 '공포의 균형'에 입각한 상호억지적인 군사력의 균형상태를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그 균형은 군비축소나 군비통제를 통한 가장 저수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평화질서라고 본다.

Ⅲ. SDI와 미국의 핵전략

여기에서는 80년대 이후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SDI가 어떤 전략무기인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기존의 미국의 핵전략하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16) 안병준, 앞의 글, p. 68.

고찰하고자 한다.

1. SDI의 개념

1983년 3월 24일 미국 대통령 레이건은 전국 TV연설을 통해 소련의 전략무기체제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초강력무기의 개발을 선언했다.¹⁷⁾ 이러한 초강력무기 즉 '전략방위계획'(SDI :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의 개발선언은 소련의 전략핵미사일의 위협에 대해 미국은 똑같은 전략핵미사일에 의한 대량보복공격으로 대항할 것이 아니라, 우주공간에 레이저(LASER), 입자빔 등과 같은 초강력무기를 배치하여 소련의 미사일을 우주공간에서 격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⁸⁾

일명 '별들의 전쟁'(Star wars) 계획이라 할 수 있는 SDI는 '탄도미사일방어'(BMD : Ballistic Missile Defense) 체제와 핵탄재폭격기 및 순항미사일 방공까지 포함하며, 파괴범위도 대기권의 우주에까지 이른다. 그리고 파괴수단도 핵탄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적외선, 레이저광선, 입자빔 등 여러가지가 있다. 따라서 SDI는 항공우주 및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인 것이다.¹⁹⁾

17) 연설 전문은 다음 참조. "President Reagan's Speech to Nation," (March 23, 1983), *Survival*, Vol. 25, No. 3 (May/June 1983), pp. 129~130.

18) 최 영, "미국의 전략방위계획(SDI)과 서방동맹국, 「국제정치논총」, 제25집(1985), p. 50 참조.

19) SDI와 별들의 전쟁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 참조.

David S. Yost, "Western Europe and the U.S.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41, No. 2 (Summer 1988), pp. 269~324; Walfram F. Hanrieder, "Strategic Defense and the German American Security Connection," *ibid.*, pp. 247~268; Stephen Kuby and Gordon Robson, eds., *The Militarization of Space* (Brighton, Sussex: Wheat Sheaf Book, 1987); The George C. Marshall Institute, *S.D.I. : "Star Wars" Project* (Boston: Little Brown & Co., 1985); Jae Kyu Park and Byung-Joon Ahn, eds., *The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Its Implications for Asia and the Pacific* (Seoul: Kyungnam University Press, 1987); David B. Rivkin, Jr., "SDI: Strategic Reality or Never-Never Land?," *Strategic Review*, Vol. xv, No. 3 (Summer 1987), pp. 43~54 참조.

현재 개발중인 BMD 체제의 실천배치 방식으로는 포프업(Pop up)방식, 빔 발사기지의 지상배치안과 레이저 발생장치의 우주배치안 등 세가지 방안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들은 상호보완적이다. 첫번째 방식인 포프업방식은 공격시만 요격무기를 쏘아 올리는 방식으로 효율도 좋고 취약점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나 엄격한 시간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대양을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는 그 방어가 곤란하다. 이 방식에서는 ICBM을 요격하는 무기는 잠수함으로부터 발사되어야 한다. 그 까닭은 타국 영토의 미사일 사일로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장소는 해역 뿐이기 때문이다. 즉, 소련의 ICBM 사일로에 충분히 접근 가능한 장소는 아라비아해와 노르웨이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다수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련에 있는 사일로의 대부분은 근해로부터 4,000 km 이상 떨어져 있고, 더우기 잠수함은 한꺼번에 모든 요격무기를 발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²⁰⁾

두번째의 빔발사기지의 지상배치방식은 높은 산과 같은 지상기지에 레이저 발생 장치소를 설립하고 여기서 발생한 레이저를 구경 5m의 반사경을 탑재한 정지궤도상의 '미러(Mirror)위성'으로 빔을 보낸다. 이 미러위성은 사일로 근처에 띄워 높은 저궤도상의 요격용 미러위성의 방향으로 빔을 반사시키게 되며 재차 방향이 바뀌어져 상승중인 ICBM의 '부스터로켓'으로 향하게 된다. 이때 그 미러위성 속의 적외선 망원경이 부스터에서 발사하는 고열을 추적하여 탄도탄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다. 이 방식은 복잡하고 거대한 레이저 발생 장치를 우주궤도상이 아닌 지상에 배치하고, 레이저 발생에 필요한 전력을 지상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빔이 대기를 통과하여 상승할 때 대기밀도의 유동성에 의해 교란효과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²¹⁾

세번째는 궁극적인 방안이라 불리우는 레이저 발생장치의 우주궤도 배치방안이다. 이것은 우주궤도상에 레이저 발생장치를 띄워 놓고 핵폭발을 일으켜

20) 김정열, "레이저의 전략방위구상(SDI)에 관한 연구," 「공군평론」, 69호, p. 19; 최 영, 앞의 글, pp. 52~54 참조.

21) 김정열, 위의 글, p. 19.

이때 발생하는 'X선'을 요격무기로 이용하는 방안이다. 우주배치시 약 3,000 km 반경내의 부스터를 공격 가능하며, 현재의 구상으로는 1990년대에 24척의 우주전함을 고도 약 300km의 궤도에 띄우겠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항상 2척이 소련상공에 있게 되고 설령 소련이 동시에 500기의 ICBM을 발사하더라도 매초당 1기씩 요격한다면 전부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²²⁾

그리고 BMD체계에 의한 제한적 방어는 3단계의 방어를 포함한다. 제1단계는 대략 100개 정도의 인공위성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많은 소형 열탐지 로켓 트로 무장된다. 이 비핵로켓트는 '부스트단계'(boost phase : 추진단계)에서 소련의 ICBM을 공격한다. 부스트단계는 미국을 향해서 날아오는 소련 ICBM의 4단계중 그 첫 단계이다. 3 내지 5분간의 부스트단계에서 ICBM의 로켓트 기관이 연소하고 미사일의 중량을 대기권 밖으로 추진시킨다. 로켓트기관이 발산하는 강력한 열은 미국의 우주배비 적외선감지기(infrared sensors)에게 소련의 발사를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²³⁾

부스트단계의 요격은 제한적인 BMD체계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소련의 ICBM이 MIRVS(multiple independently targeted reentry vehicles) 즉, 다탄두의 모두를 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한번의 요격이 수많은 탄두를 파괴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최대형의 소련 ICBM인 SS-18이 추진단계에서 파괴되면 20개 내지 30개의 탄두가 모두 중성화되어 버리고, 또한 유인물(decoys)까지도 파괴될 수가 있다. 1척의 요격은 많은 공격자의 탄두를 파괴시켜 버리기 때문에 부스트단계요격은 방어자의 요격에 큰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BMD는 방어자에게 공격자에 대하여 100 : 1의 이점을 줄 수가 있다.²⁴⁾

22) 위의 글, p. 19.

23) Keith B. Payne, *Strategic Defense : "Star Wars" in Perspective* (Lanham : Hamilton Press, 1986).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역, 「전략방위계획(SDI), 별들의 전쟁조망」 (서울 :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87), p. 86.

24) Department of Defense, *The Strategic Defense Initiative-Defensive Technologies Study* (Washington, D. C. : USGPO, April 1984), P. 6.

제2단계는 지상 배비 비핵 BMD요격으로 구성된다. 이 비핵외기권 요격무기는 미국에서 발사되어 소련의 미사일이 궤도를 날아가는 '중도단계'(mid-course)인 외기권 밖에서 작동한다. 우주에 배비된 능동적·수동적 감지기 모두가 MIRV bus로부터 탄두가 분리되는 것을 감시하고 지상배비 비핵요격기에 의한 중도단계요격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²⁵⁾

제3단계는 소련의 탄두를 마지막 단계에 와서 공격하는 것이다. 이 마지막 단계를 '종말단계'(terminal phase)라고 하는데, 약 1분이 소요되며 탄두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궤도의 마지막 단계에 와서 표적물을 향해 하강하는 단계이다. 이 종말단계는 비핵요격기의 지상배비 BMD를 사용한다.²⁶⁾

종합적 BMD의 구조는 소련의 ICBM과 탄두를 전비행도중에 요격하는 체계를 포함한다. 부스트단계, 중도단계 및 종말단계 요격에 추가하여 종합적 방어(comprehensive defense)는 부스트단계에 곧이어 MIRV를 운반하고 발사하는 'bus'를 공격할 수 있다. 3분 내지 5분간의 부스트 후단계(post boost phase) 비행중의 요격은 bus가 모든 MIRV들을 발사하기 이전에 그것을 파괴할 수만 있다면 방어가 격상되는 것이다. 부스트단계와 부스트 후단계를 지나서 발사된 탄두, 유인물(decoys), 기타 침투보조수단들은 대기권 위로 궤도를 따라서 비행한다. 이 중도단계에서 탄두들은 해상 1,000km까지 절정에 오르게 된다. 이 중도단계의 비행은 20분 내지 30분 계속된다. 종합적 방어는 중도단계에서 비행시간이 좀 길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공격해 오는 탄두에 대한 요격을 한단계 더 시도할 수도 있다.²⁷⁾

요약하면 제한적 방어체계는 3단계 비핵요격기를 포함하는데 이 3단계란 부스트단계의 요격을 위한 우주배비단계, 중도단계의 외기권공격을 위한 지상배비단계, 종말단계의 대기권요격을 위한 지상배비단계를 포함한다. 더욱 장기적인 종합적 방어는 우주에 배비된 레이저무기 등의 '지향성 에너지 무기'

25) Keith B. Payne, *op. cit.*, p. 87.

26) *Loc. cit.*

27) *Loc. cit.*

(DEW : Directed Energy Weapons)와 전자석 '레이진'을 사용함으로써 몇개의 추가적인 요격단계를 포함한다.²⁸⁾ 이러한 방어체제가 완성된다면 소련의 선제공격의 핵무기는 무력화되고 폐품화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단계 방어의 이점은 5단계 방어를 포함하는 가설적인 방어 구조의 예에서 보여준다. 이 가설적인 체제는 부스트단계, 부스트 후단계, 초기중도단계, 후기중도단계, 그리고 종말단계에서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공격하여 요격하는 모든 방어단계를 포함한다. 만약 매 단계마다 85%의 효과를 내기만 하면 전반적인 효율성을 볼 때 공격용 탄두가 침투해 올 확률은 0.01% 밖에 없다는 것이다. SDI이론가들은 소련이 10,000개의 탄두를 날려 보낼 때 겨우 한개가 침투해 올 가능성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²⁹⁾

2. 미국의 핵전략하에서의 SDI의 위상

미국이 지금까지 취해온 대소 핵전략은 '공포의 균형'에 입각한 '억지이론(deterrence theory)³⁰⁾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억지'(deterrence)'란 어떤(군사)행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예상된 이득보다 예상되는 코스트나 위험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그가 생각하고 있는 군사행동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³¹⁾ 따라서 핵억지이론에 따르면, A국이 B국에 대해 핵무

28) *Ibid.*, p. 88.

29) *Ibid.*, p. 91 참조.

30) 억지이론의 개괄적인 소개로는 James E. Dougherty and Robert L. Pfaltzgraff, Jr.,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 J. B. Lippincott Company, 1971), pp. 254~278; Lawrence David Freedman,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 (London : Macmillan Press Ltd., 1981), Ch. 3~6; 김상준, 「국제정치이론 II」 (서울 : 삼영사, 1980), 제2장 참조. 억지이론의 새로운 조망에 대해서는 Robert Jervis, "Deterrence Theory Revisited," *World Politics*, Vol. XXXI, No. 2 (January 1979), pp. 289~324 참조.

31) 억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Thomas C. Schelling, *The Strategy of Conflict* (New

기를 사용할 경우, B국도 자신의 핵보복 능력으로 A국을 공격함으로써 쌍방은 치명적인 손상을 받게 되므로 상호 핵무기 보유를 통해 어느 일방에 의한 핵공격을 억지하고 '공포의 균형'상태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현상유지와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나이더교수는 억지의 효과를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A국은 상대국 B의 능력, 즉 현재의 군사력수준과 예상되는 군사력 향상능력을 통제해야 하며, 둘째 새로운 군사기술 개발 등 군사력의 향상을 억제할 만한 위협 혹은 회유의 메카니즘을 확립해야 한다. 셋째 A국의 위협이나 회유의 메카니즘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A국의 의도가 B국에 인지되거나 수용되어야 하며, B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억지의 효과가 이루어진다고 한다.³²⁾ 이러한 의미에서 억지는 폭력적 혹은 비폭력적 수단이든 간에 상대적국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물리적(군사적) 능력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제한전의 개념 속에서 의지요인(intentions factor)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며, 군사력은 분쟁해결을 위해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흥정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핵시대에 있어서 억지는 미국과 소련 쌍방간의 무제한 군비경쟁을 자극할지라도, 어느 한 쪽이 스스로 상대를 초기에 제압할 수 있는 '제1가격능력'(First Strike Capability)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가능한 핵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억지력이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하에서는 억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1가격능력이 아니라 '제2가격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pp. 6~9; Glenn H. Snyder, "Deterrence and Defense," in Robert J. Art and Kenneth N. Waltz, eds., *The Use of Force: International Politics and Foreign Policy*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1), p. 56; 김상준, 「국제정치이론Ⅱ」(서울: 삼영사, 1980), p. 95, p. 135; 구영록, 「국제정치의 주요개념」(서울: 법문사, 1978), pp. 160~161 참조.

32) Glenn H. Snyder, *op. cit.*, p. 62.

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³³⁾ 이라는 것이다. 즉, 적의 공격을 받은 후에도 잔류시켜 보복할 수 있는 제2가격능력만을 보유하면, 소련이 선제공격을 할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만약 양측이 보다 핵공격에 취약하다면 그 어느 쪽도 핵전쟁을 유발시킬지도 모르는 행위를 감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 입각한다. '상호취약성'은 미·소전략관계에 있어서 '안정'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인식할 수 있다. 미국이 소련에 대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는 반격을 가할 수만 있다면 소련은 결코 제1가격을 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는 자살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소련이 취약한 미국에 대하여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소련도 미국의 제1가격을 크게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논리에 의해서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라고 불리우는 억지전략이 나타나게 되었다.³⁴⁾

다시 말하면 이러한 확실 파괴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소련이 아무리 치밀한 계획하에 공격을 해도 미국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없고, 미국이 잔류 보복력으로 소련에게 견딜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반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련이 기습공격할 이유가 그만큼 줄어들어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확실파괴능력을 가진 제2가격력을 미국이 독점할 필요가 없다. 독점하게 되면 오히려 소련이 불안과 공포로 인한 강박감을 갖게 되어 결과적으로 억지체제에 불안이 조성될 수 있다.³⁵⁾ 따라서 미국은 순전히 이기적인 입장에서 보아도 소련이 이러한 능력을 갖는 이른바 상호확증파괴에 기초한 제2가격능력의 상호확보가 요청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호억지를 위해서는 역설적이지만 인명이나 산업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시설을 강화하거나 도시방어를 위한 '대미사일방어미사일'(ABM :

33) 맥나마라 전 미국방장관에 의하면, 제2가격능력은 미국이 선제공격을 받고도 소련 인구의 1/5 내지 1/4과 소련 산업의 반 정도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한다. Keith B. Payne, *op. cit.*, p. 40 참조.

34) *Loc. cit.*

35) Thomas C. Schelling, *op. cit.*, pp. 230~254 참조.

Anti Ballistic Missile)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제2가격력을 견고히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들 보복력의 목표가 되는 도시나 산업시설을 보호하는 것은 상호억지를 불안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⁶⁾ 인질을 잡아두는 것은 옛날부터 사용해 온 억지의 방법이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과 소련의 주요도시의 시민들은 물리적으로 자신들의 국가내에 있어도 실제로는 상대국의 인질이나 다름 없다. 적의 선제공격을 받은 측은 잔유 보복력으로 이들 도시의 시민들을 겨냥하여 보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방위체제의 강화나 ABM의 설치는 인질을 없애는 것이 되어 상호억지의 안정을 위해서는 소망스럽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미·소간의 SALT-I의 일부로 서명된 ABM조약(1972년에 서명되고 1974년에 개정되었음)은 미국과 소련이 BMD 요격체제를 100기 이상 배비하는 것을 금지시켰던 것이다. BMD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대체로 상호취약성의 조건을 용이하게 해서 통상적인 안정을 증진시키고자 취해진 합의사항이었다.³⁷⁾ 전략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것은 안정과 상호취약성의 조건은 사실상 같은 것이라는 억지의 개념과 서로 통하는 것이다.

그러면 SDI는 이와 같은 미국이 추구하는 억지이론에 입각한 대소 핵전략 하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SDI는 곧 BMD체제를 공고히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의 상호확증 파괴에 의한 억지를 거부하고, 핵보복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도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제1가격능력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SDI가 핵무기시대의 국제평화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장을 바꾸어서 논의하기로 한다.

36) 이러한 주장은 *ibid.*, p. 239 참조.

37) Keith B. Payne, *op. cit.*, p. 46.

IV. 국제평화질서와 SDI : 평가 및 결론

완전 무장해제에 입각한 전쟁이 없는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평화질서이긴 하지만, 미·소강대국이 엄청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에서 핵무기시대의 국제평화질서는 그 성격상 불안정한 평화질서일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은 미·소양국이 전쟁을 도발하고 싶어도 도발할 수 없는 조건 내지 상황을 조성시키는 이른바 '공포의 균형'에 입각한 상호억지적인 군사력의 균형상태임을 모색해 보았다. 그런데 SDI는 이러한 균형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은 첫째, 미국으로 하여금 소련의 핵무기체계를 제1격으로 파괴할 수 있는 선제공격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전복시킬 수 있다. 미국은 SDI가 방어체계라고 강조하고, 대소 군사력 우위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핵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키려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³⁸⁾ 실제적인 군사적 사용에 있어서 방어무기와 공격무기를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SDI를 개발하여 배치하는 경우 소련에 대한 미국의 우세는 확실하며, 소련의 무기체계는 무력하게 될 것이다.

특히, SDI가 완성되면 핵보복공격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핵억지이론이 입각하고 있던 상호취약성 개념을 완전히 파기시키는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즉, 보복의 위협없이 상대방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성시키며, 이것은 곧 핵전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38) 주 15)의 "President Reagan's Speech to Nations"참조:Edward L. Rowny, "The SDI: Implications for the Asian Community," in Jae Kyu Park and Byung-Joon Ahn, eds., *The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Its Implications for Asia and the Pacific* (Seoul: Kyungnam University Press, 1987), pp. 19~26 참조.

물체는 기술적인 문제이다. 만약 핵탄두 하나라도 도시를 뚫고 들어가면 그 도시는 폐허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방어수준이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소련의 엄청난 핵무기 보유량을 감안할 때 99%의 유효한 방어라도 충분하지가 못하다. 번디와 케난 등은 레이건의 SDI 계획을 몇개의 핵무기가 인구집중지에 떨어지더라도 그 효과가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주장이라고 비판하면서, 100%의 성공률이어야만 보호가 가능하다고 역설한다.³⁹⁾

세제는 미국의 SDI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방어무기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소련측은 이를 공격무기로 간주할 것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필연적으로 미국의 SDI와 유사한 계획을 소련도 취하게 될 것이다.⁴⁰⁾ 이렇게 되면 미·소간에는 이른바 우주무기경쟁에 돌입하게 되어, 군비경쟁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그리고 미·소양국이 공히 완성된 SDI 체제를 보유하게 된다면, 이는 상호보복 위협을 제거한 제1가격력을 소유한 결과를 의미하므로, 선제공격의 효과를 제고시켜 핵전쟁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련의 우주무기 개발능력은 과소평가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소련은 1,943개(1960년-1982년)의 인공위성을 발사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 중 순수 민간용은 15%에 불과하다. 우주무기 분야에서도 소련은 1960년대 케도폭격체계(Orbital Bombardment System : OBS)와 fractional OBS의 개발에 착수하여 거의 성공적이라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지상배치대위성무기'(Ground based ASAT) 체계는 이미 개발되어 있고, 앞으로 Space-based ASAT 체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소련이 우주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은 미국의 2배정도를 상회하고 있어, 소련이 장차 유사 SDI

39) McGeorge Bundy, George Kennan, Robert McNamara and Gerard Smith, "The President's Choice : Star Wars of Arms Control," *Foreign Affairs*, Vol. 63, No.2(Winter 1984/85), pp.266~267 참조.

40) 최병운 교수는 이를 '유사 SDI'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최병운, "SDI의 배치와 신념전체제의 형성," 「한국과 국제정치」, 제2권, 2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6년 가을), pp.391~412 참조.

를 개발·배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⁴¹⁾

특히 미·소가 SDI를 병행 배치하게 되면 그것은 영·불 등의 핵능력을 증화시켜 전략면에서 이들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따라서 SDI는 반세기전의 '알타의 기술판'이 될 것이며, 다시 한번 미·소가 주도하는 양극적인 냉전체제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⁴²⁾

이상의 맥락에서 본다면 SDI는 기존의 미·소의 핵균형을 파괴하고, 미·소 핵무기경쟁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냉전체제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제평화질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오늘날의 국제 현실에서 핵전쟁을 제거하고 평화질서를 보장하는 최선의 가능한 방법일까?

미·소간의 핵전쟁은 대량파괴와 그에 대한 공포로 인해 이른바 '수인의 딜렘마게임'(Prisoner's dilemma game)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비록 막대한 자원이 낭비되더라도 양국은 군비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수인의 딜렘마게임(PDG)은 터커(A. W. Tucker)가 고안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각 플레이어가 택하게 되는 결과를 상정하고 있다.⁴³⁾ 한 경찰서에 두 혐의자가 체포되었는데 양자간에 아무 의사소통이 없이 이들은 살인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를 상상해 보자. 이때 경찰은 다음과 같이 각자에게 말한다. 두사람이 살인에 개입한 것으로 생각되나 증거를 포착할 수 없다. 그중 A에게 말하기를 네가 먼저 고백한다면 너는 석방되고 B는 종신형을 받는다고 하고, B에게도 같은 조건을 제시한다. 한편, 같은 날에 A와 B가 함께 고백한다면 양자가 함께 20년형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A와 B가 함께

41) Stephen M. Meyer, "Soviet Military Programmes and the New High Ground," *Survival*, Vol. 25, No. 5(Sep./Oct. 1983), pp.205~213 참조. 위의 글, p.404에서 재인용.

42) 위의 글, p.403 참조.

43) PDG에 대해서는 이상우, 「국제관계이론」(서울: 박영사, 1987), pp. 279~280; 김상준, 「국제정치이론 I」(서울: 삼영사, 1977), pp. 105~114; James E. Dougherty and Robert L. Pfaltzgraff, Jr., *op. cit.*, pp.354~357 참조.

묵비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비호한다면, 결국 양자는 1년형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혐의자는 상대방과 상의할 수 있다면 고백을 거부하여 협조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므로 결국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표 1의 DD). 고백해도 결국 20년형을 받지만, 고백하지 않으면 중신형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벌을 최대한 극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채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주의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미·소양국의 군비경쟁에 적용해 보면 서로 믿고 핵무기를 파괴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나(표 1의 CC), 한쪽이 협조할 때 다른 한쪽은 실리만 차릴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각자는 손해가 적은 전략, 즉 핵무기를 개발해 두려는 군비경쟁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표 1의 DD) 이렇게 하는 것이 상대방의 기습과 공갈상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1>

행위자 B

		C	D
행위자 A	C	R, R, (3, 3)	S, T, (1, 4)
	D	T, S, (4, 1)	P, P, (2, 2)

Pay-off의 구조 : T>R>P>S [R(S+T)/2 조건하에서]

여기서 C=협조(Cooperation), D=배신(Defect)

T=배반에의 유혹(Temptation to defect)

R=협조에 대한 보상(Reward for cooperation)

P=상호배반에 대한 처벌(Punishment for mutual defection)

S=일방적 협조에 따른 보상(Sucker's pay-off)

출 처 : Robert Axelrod, "The Emergence of Cooperation Among Egois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5, No. 2 (1981), p. 308.

그러나, Axelrod는 위의 표를 제시하면서 PDG는 1회만 했을 경우는 위의 결과가 나타나지만, 1회에 그치지 않고 '맞받아 싸아주기' (Tit-for-Tat) 전략으로 지속할 경우 상호협조하는 결과로 귀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⁴⁴⁾ 즉, PDG 상황하에서도 'Tit-for-Tat' 전략을 누군가가 채택하게 되면 꼭 배신(D)이라는 선택이 지배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양자가 공히 협조(C)를 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PDG가 1회에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서 이다. PDG가 1회에 끝나면 배신(D)이 지배적이거나 어느 한 행위자가 'Tit-for-Tat' 전략을 계속적으로 쓸 때 배신이라는 선택이 미래의 처벌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택을 회피하게 되고 협조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행위자의 'Tat'가 다른 행위자의 배신을 방지하는 하나의 억제인자(deterrent)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Tit-for-Tat' 전략이란 일반군사 전략관계에 있어서 억지이론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이 전략에서는 일방의 행위가 타방의 행위와 조건부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전략은 일방의 이타적 또는 협조적 태도를 타방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해주며, 궁극적으로 협조에는 보상이, 배신에는 처벌이 수반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교육시켜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다.⁴⁵⁾ 이러한 전략은 결국 상호성(reciprocity)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소간의 핵경쟁이 상존하는 오늘날의 국제질서에도 이러한 전략은 적용될 수 있다. 미·소양자간에는 의사소통과 협상창구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호혜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즉, 어느 일방이 우선 협조적 선택을 하여 상대방의 협력을 촉구해 보고, 상대가 협조(C)로 나오는 한

44) Robert Axelrod, "The Emergence of Cooperation Among Egoists," *A. P. S. R.*, Vol. 75, No. 2(1981), p.308;
문정인, "패권적 안정이론과 상호주의," 『국제정치논총』 제27집, 2호(1987), pp.12~14참조. 이와 유사한 주장은 이미 라퍼포드와 참머에 의해서도 연구되었다. A. Rapoport and A. M. Chammah, *Prisoner's Dilemma: A Study in Conflict Cooperation* (Ann Arbor: Univ. of Michigan, 1965) 참조.

45) Axelrod, *loc. cit*

배신(D)에의 유혹을 물리치고, C로 응수하며 상대가 D를 택하면 이쪽도 곧 D로 보복하나, DD로 낙착되지 않도록 때때로 C를 택하여 상대도 C를 택하도록 유인하며, 상호 CC로 낙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소간의 핵경쟁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핵전쟁을 제거하는 국제평화질서는 미·소양국이 군사적 절대우위를 달성하여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는 맹신에서 벗어나서, 상호취약성의 개념에 입각한 공포의 균형을 통한 상호억지적 균형상태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협조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SDI배치 등의 군비경쟁 보다는 제2가격력의 확보를 상호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군축과 군비통제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이점에서 1987년의 미·소간의 중거리핵협상 타결은 이러한 평화질서를 여는데 진일보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몰타의 미·소정상회담에서 부시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현재 빈과 제네바에서 각각 진행중인 유럽중단 재래식 군비감축협상과 전략무기감축협상(START)을 더욱 촉진해 나갈 것과, 이를 위해 내년 2월에 미 소 외무장관이 다시 모여 큰 줄기를 다듬은 뒤 내년 6월 워싱턴에서 있을 2차 정상회담에서는 조인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한다.⁴⁶⁾ 한편, 소련은 2000년까지 해외중단병력을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발표하였다.⁴⁷⁾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신뢰에 기반을 둔 상호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상술한 'Tit for-Tat'전략 하에서 어느 일방이 먼저 협조적 선택을 하여 상대방의 협력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저 수준의 군비균형에 입각한 새로운 국제평화질서를 수립하는 데 신기원을 열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46) 시사저널, 1989. 12. 17., p.10.

47) 동아일보, 1989년 12월 16일.